

'야권 통합 길을 묻다' 연쇄 인터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 유시민은 누구

“민주당 패권주의가 문제… 내가 ‘알박기’ 하는것 아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야권 연대 및 통합에 대해 민주당 등과 대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우선은 진보 진영 소통합 후 민주당과 연대를 추진할 뜻을 비쳤다.

유 대표는 또 야권 연대를 위해 민주당이 다른 진보적 정당에 대해 최소한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를 정도는 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연대나 통합의 명분은 무엇인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다수 유권자의 이런 요구를 현실화하려면 그들이 지지하는 여러 정당이 유권자의 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권 통합·연대가 아니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한가.

▲통합·연대는 정권교체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된다. 거기에 좋은 정책과 국민이 신뢰할 만한 행보 등이 따라야 한다.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쪽이 정권을 잡기 위해 애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시대적 과제는 우리 당 표현처럼 ‘시민은 자유롭게 살고, 국가는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식의 나리를 만드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그려려면 권력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의 ‘야당 통합특위 연설회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연설회의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런 걸 하려면 예비회당이나 실무접촉 등을 해서 서로 의견을 알아보고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밖으로 선언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반향이 없는 것이다.

-진보정당 소통합을 추진하면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선통합하고 이후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 당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추후에 논의한다니까 기다려 보는 것이다.

-진보정당 통합 후 민주당은 통합의 대상이나, 연대의 대상이냐.

▲선은 그어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통합을 논의할 기초가 없는 단계라고 본다. 일단은 기본으로 연대할 파트너로는 생각한다.

-연대에 성공했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몇 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가.

-야권 전체가 안정적 과반을 얻을 것이다.

-진보신당에서는 국민참여당을 통합의 대상보다는 연대의 대상으로 보는데.

▲논의한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 것 이 좋겠다.

-둔심근 ‘국민의 명령’ 대표가 주장하는 연합정당론에 대한 생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어느 것이 맞고,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여러 정당의 리더와 당원들이 가깝게 느끼고 이해하고 믿고 하면 대통합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부분적

대면서 높은 수준(대통합)을 하자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연합이라도 충실히 했느냐. 그 렇지 않다. 그러니까 작은 당에서는 민주당의 패권주의라고 본다.

-국참당의 정체성으로 봐서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보다는 민주당과 선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왜 그분들이 규정하나. 정당은 비

“

先 진보진영 소통합

後 민주당과 연대 추진

지지율 3% JP에게

DJ는 절반까지도 양보

민주당은 그간 퍼부었던

저주와 모욕 성찰해 보라

”

으로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그런 게 교과서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보다 모두 다 유효한 방침인데 그중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각 당원들이 대의에 얼마나 공감하는가, 또 서로에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 직업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이익을 버리면서 큰 뜻에 기여할 수 있느냐의 요소에 좌우된다. 그런 것을 살릴 때 대통합이 옳은 길이지만 그것을 이를 수 있다는 근거가 약해서 어렵다고 본다.

-연대로는 후보단일화도 어렵고 선거에 이기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릴리가 있다. 민주당 내부사정을 눈거울 들어 하는 얘기다. 작은 정당은 호혜적이고 원활한 후보단일화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 반면 민주당은 내부사정이 어렵다는 것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논거다. 그런데 더 낮은 수준의 통합 즉 연대도 어려운데 더 높은 수준의 대통합을, 그것도 낮은 수준(연대)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슷한 정치적 지향,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정치 결사체다. 왜 민주당이 우리 꿈을 규정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정권교체가 단기적 목표지만 한국 정치의 혁신이라는 중장기적 목표가 있는 정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당에 대한 결례다.

-통합시도 중 한미FTA, 노동유연화정책 등 참여정부 시절 정책에 대해 잇단 사과를 했다. 통합을 위한 고육책인가, 아니면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는 양면이 있다. 자기 소신대로만 못한다. 한 정당 안에 생각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이기도 한다. 큰 틀에서 맞으면서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를 인정하면서 정당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서는 나의 소신을 굽힐 수 있다. 과거의 생각·소신 중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때

일리·타당성이 있다면 수긍하고 때로는 완전히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통합을 하려면 함께 당을 할 분들의 생각을 감안해서 내 입장을 수정해주는 노력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애초 참여정부 세력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으로 갈린 것이 유시민 대표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생각의 자유가 있는데 ‘맞다’ ‘안 맞다’ 말하고 싶지 않다. 굳이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통합이나 연대와 관련, 민주당에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려하는 것인가.

▲배려까지는 아니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만 하면 된다. 예컨대 ‘알박기’를 주장하는데, 5만원짜리 빵을 500만원에 내놓으면 알박기다. 그러나 우리는 5만원짜리를 5만원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5000원 헬값에 강제 수용하려고 한다. 민주당 정치인이 사이에 그런 정서가 퍼져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참여당에 퍼부었던 모욕·비방·자주 등에 대해 성찰하기 바란다.

-통합에 성공한 후 민주당과 다시 통합이나 연대할 때 요구할 사항은 뭔가. 몇 석 양보를 요구할 것인가.

▲선을 그어 말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지율 3%인 김종필씨를 껴안기 위해 반을 내놨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작은 정당들의 국민적 지지를, 나는 아니라도 그 비슷한 정도는 인정해줘야 한다. 민주당의 암도적 우위는 인정한다. 기득권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합당한 기득권은 인정한다. 다만, (진보)3당 통합 후 어느 정도 지지를 나오면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민주당 손규규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통합후보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맞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보라 하는 것 아니라. 말이 어쨌든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존중할 수 있다. 과대하게 통합후보라 하지 말고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기 위한 협의는 즉각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엄청나게 나쁜 대통령이지만 나쁜 점만 있는 대통령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다. 우리도 성찰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반값등록금 같은 것도 대통령은 공약했지만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공약조차 못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잘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생각에 잠기다가) 아, 하나 있다. 보육예산을 만족스럽진 않지만 참여정부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 것은 잘했다고 본다.

가장 잘못한 것은 대북관계다. 민족에 대한 범죄다. 또 4대강 사업은 국토와 후손에 대한 범죄며 민주주의 후퇴는 역사에 대한 범죄다. 실정 차원을 넘어서 범죄적 행위를 한 정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항소이유서·TV토론 유명

유시민(52) 대표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을 하다가 ‘서울대 프락처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때 감옥에서 쓴 ‘항소이유서’가 운동권 팔도서처럼 읽히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1988~91년 이해찬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독일로 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한 뒤에는 칼럼니스트, TV 시사토론 진행자, 시사평론가로 활약하며 거칠없는 주장과 뛰어난 말·글솜씨로 대중적인 명성을 얻었다.

‘백바지 의원선서’ 논란

유 대표는 2002년 대선 당시 개혁국민당 대표 집행위원장으로 당은 달랐지만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를 적극 지원했으며 이후 2003년 3월 경기 덕양갑 국회의원 재보선에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당 후보로 출마, 당선됐고 당이 해산하자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유 대표는 ‘대통령 지킴이’ 역할을 자처했으며 등원 첫날부터 면바지에 노타이 차림으로 나와 의원선서를 하려다 다른 의원들의 반발로 선서를 하지 못하는가 하는 등 홀돌 발언과 행동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6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돼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복지부 장관때 국민연금 개혁

2007년 9월 열린우리당 해체 후에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했으나 2008년 1월 탈당, 18대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2009년 11월 국민참여당에 입당, 3월 당 대표로 선출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토불이 6년근 홍삼의 놀랍고 새로운 발견

축식맛이 선물세트 특별세일

| 단체주문 환영

일반 홍삼과 발효 홍삼은 100% 다르다.
일반 홍삼은 콩이고 발효 홍삼은 된장이다.

팽화 발효홍삼이란? 팽화발효홍삼은 인류의 명약이라고 알려진 고려홍삼을 재래식 가마에서 특수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팽화(뻥튀기) 처리하여 완성한 명품으로 일반 홍삼제품보다 유효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증량되었고 종전 홍삼제품은 체내 흡수율이 30%인 반면 저희가 기술개발한 팽화발효홍삼은 체내에 100% 흡수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감기가 자주 오고 오래가는 분
- 설사와 변비가 짙은 분(장내 미생물 부족)
-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한 분
- 면역력이 약하신 분
-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 피부가 거칠고 부스럼이 잘 나시는 분

■ 팽화발효홍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당뇨완화 | 신경계 장애 | 피부탄력 노화방지 | 각종 피부질환 개선 | 혈압강하 작용 | 소화작용 | 항콜레스테롤 작용 | 항궤양작용 | 항암 작용 | 해독작용 및 중금속배출

무료상담 전화 062-262-5375·010-6770-4488·010-6773-1283 무료출장 상담가능